

대전광역시 동구를 중심으로 한 민선자치 4기 1년 평가와 과제



이장우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들어가기

지금 전국의 각 자치단체는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대전 동구 역시 지난 해 7월 민선4기 시대가 개막된 이후 동구민의 성장동력을 찾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특히 지난 1년은 동구발전의 백년대계를 세우고, 100대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21세기형 도시발전의 모델을 마련키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 한해로 평가할 수 있다.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분야로는 교육 으뜸도시 동구건설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대청호·식장산·만인산을 잇는 레저벨트 구축사업, 날로 침체되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동구의 지도가 바뀔 정도의 크고 작은 도시개발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된 한 해 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전의 랜드마크가 될 28층 쌍둥이타워 철도청사가 지난해 12월 초 역사적인 기공식을 가진 데 이어, 금산선 확장공사와 동부순환도로 개설, 자양동과 용운동간 백룡길 확장공사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사업이 이뤄졌다.

더욱이 가오지구택지개발·용운지구·낭월지구 등 3개지구 동남부권 신도심 개발사업이 완료, 입주가 시작돼 19년 만에 동구 인구가 24만을 돌파했으며, 꾸준하게 추진해 온 도시개발·주택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동구발전의 상승분위기가 고

조되고 있는 중이다.

이밖에도 신청사건립지가 “가오지구”로 확정됨에 따라 향후 동구발전의 중심이 역세권 개발을 통한 대전역권과 가오지구, 산내 등 동부남부권이 동구 발전의 양대축으로 균형 발전하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했다 점도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발전의 이면에는 산적한 난제들도 쌓여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겪고 있는 재정악화는 자치단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동구 역시 이러한 재정압박 문제에 직면, 주민에게 꼭 필요한 크고 작은 현안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차질이 빚어 졌으며, 지역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기반도 매우 취약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정상적인 행정을 이끌어 가기에는 여러 면에서 제약요인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의 민선4기 1주년은, 24만 구민과 공직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동구의 100년을 새롭게 디자인한 해였다고 평가할 만하다. 동구가 변하고, 직원이 변하고 있다는 평가 역시 도시발전 인프라 구축 못지 않은 성과로 볼 수 있다. 민선4기 1년동안 이룩한 성과를 중심으로 향후 동구가 나가야할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민선 4기 1년의 주요 성과

지난 1년간 동구의 주요 구정은 21세기 동구발전의 성장동력을 찾는 노력에 맞춰졌다. 취임 초부터 전략사업팀을 신설하고 그 내부조직으로, 교육환경개선, 레저벨트, 재래시장활성화, 평생교육팀을 두어, 역점적으로 추진한 3대 공약 사업이 그것으로 국제교육센터 건립 등 교육인프라 구축,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대청호·식장산·만인산을 연계하는 레저벨트 구축 사업으로 지난 한해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더불어 철도주변정비사업, 역세권 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시의 계획과 연계한 무지개 프로젝트, 대학로(촌) 조성 등의 사업도 가시화되고 있어 동구의 미래 지도가 바뀌는 대 전환점을 맞이한 한해 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동구가 추진해온 사업성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

지난 1년 대전동구는 『21세기 강남에서도 오고 싶어 하는 교육동구』 『국제교육의 메카 대전동구』건설의 좌표를 세우고 취약한 교육분야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성과는 그동안 동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국제교육센터가 가오동에 부지를 마련한 것이다. 국제교육센터는 일일 체험형태의 영어마을이 아닌 최단 3개월 코스의 통학형으로, 원어민교사가 학습과 체험을 겸비한 실생활영어를 지도하게 되는 데, 올해 하반기에 착공, 내년 초 문을 열 예정이다.

더불어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2007년 3월 평생학습팀을 신설하였고, 앞으로 「평생학습지원조례」공포와 함께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평생학습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차세대 인재육성재단 설립, 자양·가양·용운지구에 대학로(촌) 조성, 특목고 및 특성화고 유치, 호주·캐나다·일본·중국 등과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젝트 등도 추진하고 있어 머지않은 장래에 동구가 명실상부한 대전 최고의 교육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 대청호·식장산·만인산을 연계한 레저벨트사업 추진

대청호·식장산·만인산을 연계한 레저벨트 구축사업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관광·레저산업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레저도시 동구건설」이 목표인 데, 특히 올해는

레저벨트구축사업의 원년으로 대청호 주변을 집중 개발하고, 향후 식장산과 만인산을 연계하여 종합레저벨트 개발 계획을 완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선 대청호주변 레저벨트 구축사업은 추동과 신상동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해 오는 2011년까지 총 340억여 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친환경적인 관광레저단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대청호취수탑 주변과 신상동 흥진마을 일원, 상소동과 만인산 일원, 직동 등을 권역별로 개발,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휴양과 관광이 어우러진 인프라를 구축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복합레저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진해 균형제에 버금가는 전국 최고 빛꽃명소로 조성을 위한 대청호식장산 일원을 연결하는 빛 꽃길(단지)조성 △1일 생태 체험 관광투어 개발 △고봉산 일원 대규모 철쭉단지 및 신상동 일원 야생화 단지 조성 △마산동·주산동 일원 사진촬영 명소 조성 △산악 자전거(MTB) 대회유치 △냉천길 자전거 도로 개설 등이 추진된다.

3.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

재래시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도시서민들의 삶의 공간이다. 중앙시장 등 대전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을 갖고 있는 동구는 이를 활성화시켜야만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큰 과

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동구는 재래시장살리기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동구는 재래시장 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상가건물 및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을 추진한 바 있고,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구 원동 하나은행 건물을 매입해 현재 상인들을 위한 이벤트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건물의 2층과 3층에는 전국상인교육장을 유치하여 금년 7월부터는 연간 2만여 명의 상인이 교육을 받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금년 3월에는 중앙시장 내 12개의 등록·무등록시장을 하나로 묶는 통합 상인회를 출범시킴으로써, 상인들 스스로의 재래시장살리기의 구심점을 제공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큰 진척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건설건축 자재거리에는 물류센터를 건립해 중소기업들의 애로점인 유통비를 크게 절감시키는 노력도 병행됐다.

이밖에도 매주 수요일 재래시장 활력데이 운영, 재래시장 상품권 팔아주기 운동, e-재래시장의 효율적 운영, 시장상품을 공무원이 가정까지 직접 배달해주는 공무원택배제 시행 등으로 중앙시장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금년 7월부터는 중앙시장 활성화 로드맵 마련을 위한 시장연구용역(1억원)발주, 중

양시장 안내도우미 시스템 설치, 상가건물 리모델링 사업, 중앙시장 미술제 등을 추진한다.

특히 내년에는 중앙시장 차 없는 거리지정과 테마거리조성 대형 주차타워 건립 등 중앙시장을 획기적으로 변모시킬 대형사업 추진을 통해 중부권 최고의 시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4. 사회 문화 복지 분야의 성과들

문화·생활체육 분야의 인프라구축에도 큰 결실을 거둔 한 해였다. 2009년 제 90회 전국체전을 대비하기 위한 국제수준의 종합시립수영장의 용운동 유치가 확정되었고, 상소동에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조상들의 전통과 얼을 본받을 수 있는 『3.16 인동장터 독립만세 운동』재현 행사, 식장산 봄꽃축제, 판암골 단오한마당 등 시민참여형의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축제를 개최해 호평을 받았다.

복지분야에서는 어려운 이웃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자원봉사로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복지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용운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동구다기능노인종합복지회관이 건립 중이며, 이와 더불어 이시동실비노인요양시설의 건립도 추진되고 있어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인프라구축과 여성들을 위한 제 3여성 문화회관 건립사업도 원활히 추

진되어,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쾌적한 녹색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명의 나무심기와 판암 근린공원 확충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만남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전국에서 가장 친절할 구청 만들기

취임 후 가장 많은 공을 들였고 변화된 것 중의 하나가 친절을 바탕으로 한 구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한 혁신 경영행정이었다. 역점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략사업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한 조직진단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해 나갔으며, 능력 있고 노력하는 공무원을 전진 배치하여 조직에 생동감과 활력을 불어 넣었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또한 취임 초부터 추진한 ‘대한민국 최고의 친절구청 만들기’는 동구 공직자의 친절도와 서비스를 크게 개선해 주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 동구는 공직자의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해 간부 직원 등이 국내 유수의 친절서비스 교육기관인 삼성 CS아카데미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바 있고, 올해에도 지속적인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구포럼을 통해 지역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가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민원봉사과에 고객만족 행정전담부서를 신설함과 동시에 해피콜과 캐치콜 등을

통해 행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한편 베스트친절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고, 노후 된 민원실을 리모델링해 밝고 쾌적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

III. 민선4기 1년 평가와 과제

대전역사의 발원지로서, 대전의 얼굴인 동구의 옛 영화를 회복하기 위해 민선4기 1년여의 기간동안 24만 구민과 함께 뛰어왔으나 구정의 현실은 그렇게 장밋빛만은 아니었다고 본다.

가장 아쉬운 부문으로는 경기침체 등으로 구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어 현안사업이 제 때 추진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동구는 2005년부터 시행하는 대별동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총28억) 용전동과 자양동 사무소 신축사업 등에서 차질이 빚어졌다. 또한 주민 스스로의 자치 의식 부족 사례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지역이기주의로 대변되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상충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구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민선 자치 12년을 경과하고 있는 지방 자치는 진정한 지방분권이나 재정분권을 이루어 내지 못한 채 많은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다.

특히 지역민 스스로 지역발전을 일구어 가기에는 중앙 정부의 예측이 심하고, 정부가 권한을 절대적으로 행사하고 있어 자치발전의 장

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점은 재정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바, 재정수요와 업무는 늘고 있으나 오히려 자체 수입은 감소하고 있고, 업무만 이관되는 현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어 큰 난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복지예산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을 상호 분담하는 매칭펀드로 편성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치단체의 경우 복지예산의 증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신규 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형편이다.

지금 동구의 재정현실은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재정자립도가 17.7%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지방교부세의 직접교부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만아니라 공적부조 대상자가 증가하고,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 국고보조 대상 재정수요가 편중되어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진정한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이 선행되어야 하고, 경찰과 교육 등 주요 사무를 자치구에 이전하여 자치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자치구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구에 대한 지방교부세 교부 또는 중앙정부와의 세목 조정 등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을

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야심차게 계획하고 추진한 사업들이 결실을 맺고 자치구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매김할 것이다.

IV. 맺는 말

지난 1년은 남은 동구의 미래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새롭게 디자인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민선4기동안 남은 과제는 열악한 재정 여건과 취약한 지역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더욱 정교한 선택과 집중의 경영행정을 펼쳐가는 일일 것이다.

특히 동구는 교육·레저·지역개발·지역경제 활성화에 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선4기 1년은 지역민의 오랜 여망인 청사이전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지역민에게 고취시킨 한 해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민선 자치의 성공 열쇠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우리 동구는 앞으로 더욱더 지역 주민들의 열정을 한 데 모으고, 기분 좋은 변화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방침이다.